

방문자의 자아 구성, 자아 존중감, 성별이 개인 웹사이트에 드러난 자기 제시(self- presentation)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윤미 · 양혜영 · 이민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과정)

김주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본 연구는 흔히 미니 홈페이지로 불리는 개인 웹사이트(personal website)의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성별, 자아 구성, 자아 존중감, 자기제시 방식을 주요 설명변인으로 놓고 개인 웹사이트 주인에 대한 호감도와 유용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검증해 보았다. 또한 잠재평균분석(LMA)을 통해서 구인된 변인들 간에 남녀 집단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동성보다는 이성의 자기 제시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동성의 과시형 자기 제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한편, 지각된 유용감 측면에서도 남녀 모두 이성의 자기 제시에 대해 보다 유용하다는 평가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과시형 자기 제시를 한 남성에 대해 더욱 유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제시자의 성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아구성과 자아존중감은 성별의 효과에 비해 일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오프라인에서의 자기제시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이러한 차이가 웹사이트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동일하게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기제시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문자에게 호감을 주는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특성(특히 성별)을 고려한 자기 제시 유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암시한다.

* 교신저자. jkim@yonsei.ac.kr

주제어: 개인 웹사이트, 자기 제시, 자아 구성, 자아 존중감, 호감도, 지각된 유능감, 구조방정식 모형, 잠재평균분석

1. 서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기제시(self presentation)를 한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자기 제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남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얻으려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형성하게 되는 인상에서 따라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인상을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라고 한다(Goffman, 1959). 사람들은 인상을 관리해서 좋은 인상, 호감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지각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인상 관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제시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며 잘난 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자기 제시를 사용하기도 한다(김경호, 2003). 이러한 자기 제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제시에 관한 것(Goffman, 1970; 1981)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미니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자기 제시에 대한 연구(김수현, 2006; 오원웅, 2004; 조희진, 2006)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주로 미니홈피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제시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 미디어로서 각광받고 있는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자기 제시를 하는 것이 방문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방문자의 성별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

로 볼 수 있는 자아구성(self-construal)과 자아존중감(self-esteem), 그리고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제시 유형을 변인으로 놓고 연구할 것이다. 성별과 자아구성,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자기 제시 방법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자기 제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알아봄으로써 개인 웹사이트에 효과적으로 자기 제시를 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와 평가

자기 제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고프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학자로서 고프만은 자기 제시가 사회적 실제성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며 외적 요인들에 더욱 관심이 있었고, 내적 심리적 요소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Leary & Kowalski, 1990).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자기 제시가 기본적인 대인 관계의 과정으로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Leary & Kowalski, 1990), 공격성(Tedeschi & Felson, 1994), 인지적 부조화(Tedeschi & Rosenfield, 1981), 직장 면접(Stevens & Kristof, 1995)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제시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자기 강화(self enhancement) 자기 겸손(self effacement) 제시로 구분하거나, 또는 기술적(tactic), 전략적(strategic), 방어적, 자기 주장적 자기 제시로 나눈다(Heine & Lehman, 1997).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분 중 하나는 밀러와 그의 동료들(Miller, Cooke & Morgan, 1992)이 제시한 과시형, 긍정형, 낮춤형 자기 제시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Leary & Kowalski, 1990).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게 자기 제시를 하는 것인지 혹은 친한 친구에게 자기 제시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자기 제시의 방법과 그 효과는 달라진다(Tice, 1990).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 제시의 효과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자기 제시 유형을 활용하여야 할지를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

결국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형성하는 이미지를 컨트롤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형성하는 스스로의 인상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지각하고, 평가하고 대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다(Leary & Kowalski, 1990: 34).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를테면 유능하게 보이거나, 매력적이고 정직하게 보이는 것 등이다(Leary & Kowalski, 1990; Sedikides,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웹사이트를 통한 자기 제시 역시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형 자기제시가 과시형 자기 제시보다 더욱 높은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1> 개인 웹사이트에서 긍정형 자기 제시는 과시형 자기 제시보다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 2> 피험자들은 긍정형 자기 제시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 주인에 대해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2)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밀러(Miller et al., 1992)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방면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남성성과 관련성이 높은 반면에, 긍정적으로 노출하는 사람들은 잘난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성과를 최소화하며, 여성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자기제시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의 잘난 척은 대부분 사회 비교나 경쟁과 관련해서 최상급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여자보다 잘난 척이 더욱 극단적이며, 긍정적 노출과 비교적 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남성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자는 사회 정서적 목표, 남자는 수단적 목표와 통제를 사용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직접적인 통제 수단(예, 명령)을 사용하고, 여자는 대인적 관심을 표현(예, 우리와 같은 인칭 대명사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왜 자기제시와 그 효과에 있어 이러한 남녀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추가적인 사회적 목표나 요구가 이러한 차이를 심하게 하거나, 남자들 보다 여자들이 성공적으로 복합 전략을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자기제시의 유형과 그 효과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 동성이냐, 이성이나에 따라서도 그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자기제시의 유형과 그 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같은 대상의 자기 제시에 대해서도 남녀 수용자가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을 다르게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같은 자기제시유형을 보이더라도 그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수용자의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개인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1> 남자의 긍정형 자기 제시와 여자의 긍정형 자기 제시에 대한 호감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 2 2> 남자의 긍정형 자기 제시와 여자의 긍정형 자기 제시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은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 2 3> 남자의 과시형 자기 제시와 여자의 과시형 자기 제시에 대한 호감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 2 4> 남자의 과시형 자기 제시와 여자의 과시형 자기 제시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은 차이가 날 것이다.

3)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 미디어로서의 개인 웹사이트

고프만(Goffman, 1959)은 면대 면과 온라인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 제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에서의 자기 제시는 억제되어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보여주는, 혹은 보이는(given and given-off) 표현 사이에 잠재적인 불균형을 조절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발산하는 표현에 대해 강한 컨트롤을 하고, 따라서 아이덴티티의 조절이 노출되는 위험은 적다(Goffman, 1959). 그러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자기제시 전략은 오프라인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Dominick, 1999). 이러한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기제시 미디어로서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제시의 미디어로서 개인 웹사이트를 보는 시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온라인에서의 자기제시에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자기 제시에 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분석한 논문들, 그리고 웹 페이지에서의 인상 형성에 대한 논문 등이 있었다.

스미스(Smith, 1998)는 개인 웹사이트의 수사학적인 성립을 분석하는 데 있어 특히 웹 페이지 주인들이 자기 제시와 초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 — 피드백 AP커니즘(이메일, 방명록 등), 수직 하이러키(vertical hierarchies, 페이지에서의 아이템 위치), 개인의 전문가적 의견, 외부의 인정(사이트에 대한 상), 직접주소(direct address), 성격 등 — 에 중점을 두었다. 도미니크(Dominick, 1999)는 특정 페이지의 짧은 이력, 카운터, 방명록, 링크 등이 사회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링크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설명하며,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방명록을 보는 것, 방문자의 서명이나 코멘트를 수집하는 것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위한 긍정적인 강화를 찾는다. 또한 파파차리시와 루빈(Papacharissi & Rubin, 2000)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동기 연구에서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interpersonal utility), 시간 보내기(pass time),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 편리함(convenience), 오락(entertainment) 등이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온라인 미디어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용 동기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의 증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자기제시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에서의 자기제시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개인 웹사이트에서의 자기제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4) 자아 구성(self-construal)과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

자아 구성(self-construal)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할 때에 갖는 생각, 느낌,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Singelis, 1994). 이 개념은 최근 들어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비교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며,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통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kus & Kitayama, 1991; Singelis, 1994).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관련되는 지각, 기억, 추론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Cross & Madson, 1997: 6)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견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각(Carpenter, 1988; Dunning & Hayes, 1996)한다. 자아 구성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의 자아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 따라서 독립적 자아 구성(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interdependent self-construal)으로 나눌 수 있다.

마커스와 기타야마(Markus & Kitayama, 1991)는 독립적 자아 구성과 상호의존적인 자아 구성이 각기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독립적 자아와 상호의존적인 자아의 주된 차이점은 자신의 자아(self)가 타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있는데, 독립적 자아의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여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자급자족적(self-sufficient)이다. 독립적 자아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은 유일함과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자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을 표현하기 위해 애쓴다. 또한,

독립적 자아는 타인이 자신의 내적 본질을 평가하거나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환경에 잘 반응한다.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조직 (self-schemata, 자신에 대한 조직 혹은 기억)은 독립적 자아의 목적 —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 —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에 이외는 대조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자아의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 자신과 타인 집단 사이의 심리적 범위는 종종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되기에, 그 결과 심지어 그들에 대한 타인의 영향력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타인 집단으로부터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상호의존적 자아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종, 상호 의존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행동양식 혹은 관습에 따라 자신의 목표나 의견, 감정을 내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Markus & Kitayama, 1991).

마커스와 기타야마(Markus & Kitayama)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독립적 자아 구성을 갖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과시형 자기 제시(bragging self-presentation) 나 긍정형 자기 제시(positive self-presentation)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갖는 사람들은 낮춤형이나 겸양형의 자기 제시(negative self-presentation)를 선호한다. 상호의존적 자아는 관계 자체가 목표지만, 독립적 자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다. 원래 자아 구성은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된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경우에도, 개인은 독립적 자아 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Kitayama et al., 1997; Singelis & Brown 1995)이 나오고 있으며, 자아 구성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개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김민선 등(Kim, Kim, Kam & Shin, 2004)은 독립적 자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구성들이 긍정형과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얻어진

이러한 결과가 개인 웹 사이트 상황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1> 독립적 자아 구성의 사람들은 긍정형 자기 제시를 보인 웹사이트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 주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2>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의 사람들은 과시형 자기 제시를 보인 웹사이트보다 긍정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 주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3> 독립적 자아 구성,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의 사람 모두 과시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 주인이 긍정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 주인보다 더 유능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5)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

자기 제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꼽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Rosenberg, 1965, 한규석, 2002)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특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며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Hater, 1983; Wylie, 1979). 자아존중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Cast & Burke, 2002). 첫째로,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자아존중감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두 번째는 동기로서의 자아존중감이다. 사람들마다 자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자 하며, 남들에게도 좋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로, 완충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이다. 이는 부정적인 정보나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도, 이전의 많은 연구(이석재, 1995; 최창호, 1993; Baumeister, Tice & Hutton, 1989)는 자아존중감이 자기 제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주장적 제시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감추고자 자기 보호적 제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하고, 좋게 평가 받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능력과 사회성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수준 차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자기 제시 방법에 영향을 준다(Schutz, 1998). 칭찬 받을 만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주로 자신의 능력 있음과 경험이 많음 등을 들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간접적인 자기 제시를 사용한다. 한편, 비난 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사용한다(김경호, 2003, 재인용). 또한 이런 자아존중감의 수준 차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위기가 느껴지거나 이미 저하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적절한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킨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아서 주로 자기 주장적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기 성취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김경호, 2003, 재인용). 이러한 연구는 자이존증감의 수준에 따라 자기 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이존증감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하려는 과시형 자기 제시 또는 긍정적 자기 제시를 할 것이다. 반면에 자이존증감에 손상을 받은 사람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적 자기 제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1>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주인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주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2>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과시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주인보다 긍정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주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3>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과시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주인이 긍정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주인보다 더 유능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6)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Being Liked and Perceived as Competent)

갓프레이(Godfrey, Lord & Jones, 1986)는 유능감을 얻는 것은 호감도를 얻는 것과는 별개라고 했는데, ‘유능감’과 ‘호감도’ 이 두 가지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의 두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기 증진의 역설(self-promoter's paradox)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주장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때보다 자신감이 없다고 평가 받으며, 따라서 ‘유능감’ 과 ‘호감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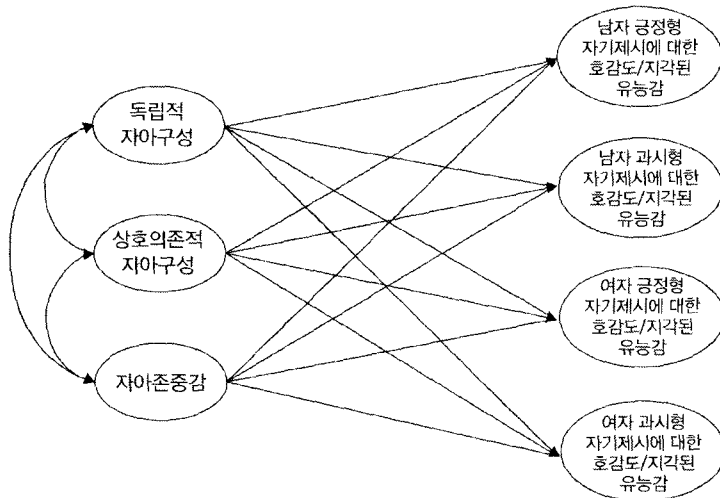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강조할 때, 그것이 호전적이며 자만심이 강한 것으로 보여, 호의적이지 못한 인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Godfrey et al., 198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호감도’와 ‘유능감’이 반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수의 경우, 학생들은 능력 있는 교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다른 상황에서 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은주,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 중 2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남학생은 136명(45.9%), 여학생은 159명(53.7%)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만 18세에서 만 29세였다.

(2) 실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인 학부생들은 두 가지 유형의 자기 제시가 나타나는 남성, 여성의 싸이월드 미니웹사이트를 보고(2×2=4개의 미니웹사이트), 서로 다른 자기 제시 유형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지필검사로 응답했다. 총 네 가지 유형의 미니웹사이트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은 웹사이트 주인에 대한 호감도와 피험자가 지각한 웹사이트 주인의 유능감으로 측정되었다.

(3) 네 가지 웹사이트 주인들의 자기 제시 유형

본 연구는 밀러와 그의 동료들(Miller et al., 1992)이 제시한 세 가지 자기 제시 유형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 제시 유형을 과시형(bragging)과 긍정형(positive)으로 다음과 같이 조작하였다. 첫째, 과시형 자기 제시는 최상급의 찬사를 종종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성과를 나타낸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보다는 자신이 원래 매우 '우수한' 사람이라서 별다른 노력 없이 성과를 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성취가 매우 당연한 것이라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이다" 라든지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한다" 등이다. 둘째, 긍정형 자기 제시 역시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지만,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음 혹은 과업에서의 자신이 책임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했다는 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싸이월드 미니웹사이트의 메인 화면만을 조작하여 피험자

들로 응답하게 했는데, 조작된 항목은 미니웹사이트 제목, 인사말, 스토리룸의 제목, 스토리룸에 들어갈 텍스트, 그리고 사진 2장(메인 사진 1 장과 스토리룸 사진 1장)이다. 텍스트들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과시형과 긍정형을 나누어 처리하였으며, 웹사이트 주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말투는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하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사진에 등장하는 웹사이트 주인의 외모(appearance)가 통제되지 않으면 남, 녀가 혼재된 피험자들이 자기 제시 유형의 영향이 아닌 외모의 영향을 받아 호감도, 유능감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모를 가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과시형 제시일 경우 모두 자신을 스스로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고, 긍정형 제시일 경우 타인이 찍은 웹사이트 주인의 독사진을 게시하였다.

설문 중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과시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개성이 있고 쿨하다”, “당당하게 잘난 척하는 점이 마음에 든다” 등이, 긍정형에 대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느껴진다”, “진지하게 노력하며 솔직하다”, “겸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러한 조작 확인을 통하여 과시형 웹사이트는 과시형 자기제시로서, 긍정형 웹사이트는 긍정형 자기제시로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모두의 자아 구성과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자기 제시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와 피험자가 지각한 웹사이트 주인에 대한 유능감을 측정하였다.

(1) 자아 구성(self-construals)

본 연구는 김민선과 그의 동료들(Kim et al., 2004)의 자아 구성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아 구성 척도는 독립적 자아 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문항 수는 각각 7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독립적 자아 구성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행동한다” 등의 문항이 있고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 문항은 “내가 속한 집단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개인적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은 6점 척도(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고 독립적 자아 구성 문항 간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며(Cronbach $\alpha = .733$, $m = 4.384$, $sd = .111$),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 문항 간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Cronbach $\alpha = .801$, $m = 4.169$, $sd = .144$).

(2) 자아 존중감(self-esteem)

자아 존중감 척도의 총 문항 수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높은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설문은 6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9개의 문항만으로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Cronbach $\alpha = .821$, $m = 4.475$, $sd = .154$).

(3)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 제시에 대한 호감도(likeability)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 제시에 대한 피험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호감도와 유능감을 측정하였다. 먼저 피험자의 호감도는 “홈피주인 A는 호감 가는 사람이다” “홈피주인 A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즐거울 것 같다” “홈피주인 A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형 자기 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Cronbach $\alpha = .880$, $m = 3.251$, $sd = .068$)이었고 과시형

자기 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Cronbach $\alpha = .898$, $m = 3.071$, $sd = .048$). 긍정형 자기 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의 문항 간 신뢰도 역시 만족되었고(Cronbach $\alpha = .880$, $m = 4.208$, $sd = .043$) 과시형 자기 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높게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909$, $m = 3.195$, $sd = .016$).

(4)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 제시에 대해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

다음으로 피험자의 유능감은 “홈피주의 A는 똑똑한 사람 같다” “홈피주인 A는 지식이 풍부한 것 같다” “홈피주인 A는 지적인 사람 같다”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역시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형 자기 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의 문항 간 신뢰도는 높게 측정되었으며(Cronbach $\alpha = .927$, $m = 3.723$, $sd = .031$) 과시형 자기 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의 문항 간 신뢰도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Cronbach $\alpha = .905$, $m = 2.614$, $sd = .017$). 긍정형 자기 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의 문항 간 신뢰도 역시 충족되었고(Cronbach $\alpha = .925$, $m = 3.770$, $sd = .008$) 과시형 자기 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의 문항 간 신뢰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953$, $m = 2.676$, $sd = .003$).

4) 요인의 산정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독립적 자아구성,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자아존중감,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이다. 모든 측정 문항은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편포도 < 2 , 첨도 < 7)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4. 연구 결과

1) 자기제시 유형에 따른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표 1> 자기제시 유형에 따른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mean (sd)	r	t	df
호감도	남	긍정형 남자	과시형 남자	.173 (1.173)	.422**	2.535	293
	여	긍정형 여자	과시형 여자	1.012 (1.336)	.270**	13.016**	294
지각된 유능감	남	긍정형 남자	과시형 남자	1.111 (1.145)	.367**	16.578**	291
	여	긍정형 여자	과시형 여자	.573 (1.322)	.311**	7.422**	292

*p<.05, **p<.01

긍정형 자기 제시와 과시형 자기 제시의 호감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긍정형 남자가 과시형 남자 보다 선호되었으나 둘 간의 호감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에 긍정형 여자와 과시형 여자 간의 호감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띠고 있으며, 피험자들은 긍정형 여자의 자기 제시에 대해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긍정적 자기 제시가 과시적 자기 제시보다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밀러의 연구 결과(Miller et al., 1992)와 동일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긍정형 남자와 과시형 남자 간의 유능감 점수를 비교했고, 긍정형 여자와 과시형 여자 간의 유능감 점수 역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피험자들은 과시형 자기 제시보다는 긍정형 자기 제시가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했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긍정적인 자기 제시 유형이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과시형의 자기 제시 유형에 대해서는 덜 유능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유능감의 평균 점수를 6점 척도로 환산하면 과시형 남자와 여자 모두에 대해 ‘③ 약간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과시형 여자가 과시형 남자보다는 조금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이스(Tice et al., 1995)는 과시형, 긍정형 자기 제시는 유능감의 암시로 보이도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긍정형 자기 제시만을 피험자들이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웹사이트 주인의 성별에 따른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표 2> 웹사이트 주인의 성별에 따른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mean (sd)	r	t	df
긍정형 자기 제시	호감도	긍정형 남자 - 긍정형 여자	-.957 (1.151)	.268**	-14.282**	294
	유능감	긍정형 남자 - 긍정형 여자	-.122 (1.348)	.388**	-1.557	293
과시형 자기 제시	호감도	과시형 남자 - 과시형 여자	-.0468 (1.109)	.407**	-.721	291
	유능감	과시형 남자 - 과시형 여자	-.571 (1.322)	.315**	-7.394**	292

*p<.05, **p<.01

다음으로 웹사이트 주인의 성별이 피험자들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제시의 방법을 통제하 채, ‘성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긍정형 남자 - 긍정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입증되었고, 긍정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긍정형 남자 - 긍정형 여자에 대한 유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아니기에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또한 과시형 남자 - 과시형 여자 간의 호감도 차이에 대한 t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기에 가설 2-3> 역시 기각되었다. 반면에, 과시형 남자 - 과시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피험자들은 과시형 여자의 자기 제시가 과시형 남자의 자기 제시보다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4>는 증명되었다.

3) 남녀 집단에 대한 구인 동등성 비교와 잠재 평균 분석

변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독립변인인 독립적 자아구성,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자이존증감 변인에 대한 측정 모형을 남녀 두 집단에 대해 비교하였다.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 동일성의 검증을 위해서 이 측정 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즉,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에서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측정하는 $\Delta\chi^2$ 검증이 가능하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추정을 자유롭게 한 기저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적재치를 남녀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 역시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했다. 기저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χ^2 값 차이가 유의미했지만 ($\Delta\chi^2(6, N=296)=6.60, p<.001$) 모형 적합도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Delta TLI=.01, \Delta RMSEA=-.004$).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이므로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홍세희 외, 2005). 모형 2는 모형 1과 비교했을 때, TLI와 RMSEA의 값이 나빠졌지만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고 모형 2의 TLI와 RMSEA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므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Delta TLI=.01, \Delta RMSEA=-.004$).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어느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 단계로 절편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및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 3)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 간의 $\Delta\chi^2(9, N=296)$ 는 40.65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Delta\chi^2$ 에 의한 절편 동일

성은 성립되었다. 또한, ΔTLI 는 -.054, $\Delta RMSEA$ 는 .01의 차이가 났지만, 모형3의 TLI와 RMSEA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므로 모형3의 절편 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 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으로는 웹사이트의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해 지각된 유능감,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해 지각된 유능감, 각각 남녀 웹사이트 두 가지에 대한 것으로 8개의 잠재변인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모형을 남녀 두 집단에 대해 비교하였다.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토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저 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 역시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했다. 기저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표 3>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자아구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형	χ^2	df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96.80	48	.88	.05
모형2: 측정동일성	102.76	54	.89	.05
모형3: 측정 및 절편 동일성	143.41	63	.84	.06
모형4: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164.15	66	.82	.07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에 대한 모형	χ^2	Df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760.89	448	.97	.04
모형2: 측정동일성	766.29	464	.94	.04
모형3: 측정 및 절편 동일성	820.25	488	.93	.04
모형4: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839.85	496	.93	.04

*N=296

χ^2 값 차이가 유의미했지만($\Delta\chi^2(16, N=296)=6.60, p<.001$) 모형 적합도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Delta TLI=-.03, \Delta RMSEA=.005$).

모형2는 모형1과 비교했을 때, TLI와 RMSEA의 값이 나빠졌지만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고 모형2의 TLI는 .90보다 높고 RMSEA 역시 .50보다 낮으므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Delta TLI=-.03, \Delta RMSEA=.005$).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종속변인의 측정도구들 역시 어느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 단계로 절편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과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및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3)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2와 모형3 간의 $\Delta\chi^2(24, N=296)$ 는 53.96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Delta\chi^2$ 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성립되었다. 또한, ΔTLI 는 -.003, $\Delta RMSEA$ 는 .001로 매우 미미하였으며, 모형3의 TLI는 .90보다 높고 RMSEA 역시 .50보다 낮으므로 모형3의 절편 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 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잠재 평균 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비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측정 집단의 잠재평균을 측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여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표 4>는 구분 변인에 대한 남녀 학생 간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4>에 제시된 코헨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 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Hong et al., 2003).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자아구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모형4)의 적합도를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 3)과 비교($\Delta\chi^2(3, N = 296) = 20.74, p < .001, \Delta TLI=-.03, \Delta RMSEA=.005$)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종속변인인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

<표 4> 구분 변인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인	남자 (n = 137)		여자 (n = 159)		효과크기(d)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독립적 자아구성	0	4.42	-.175	4.35	.54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0	4.06	.207*	4.26*	.71
자아존중감	0	4.29	.056	4.31	.20
긍정형(남)-호감도	0	3.05	.412**	3.43**	.39
과시형(남)-호감도	0	2.83	.444***	3.28**	.41
긍정형(여)-호감도	0	4.28	-.094	4.14	.11
과시형(여)-호감도	0	3.38	-.345*	3.04*	.27
긍정형(남)-유능감	0	3.64	.150	3.79	.14
과시형(남)-유능감	0	2.46	.314**	2.75*	.33
긍정형(여)-유능감	0	3.8	-.057	3.75	.06
과시형(여)-유능감	0	3.38	-.214	3.04*	.21

*p<.05, **p<.01, ***p<.001

감 8개 변인에 대해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모형 4)의 적합도를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 3)과 비교($\Delta\chi^2$ (8, N=298)= 35.74, $p<.001$, $\Delta TLI=-.001$, $\Delta RMSEA=.001$)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 값은 공통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코헨(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값이 .2이하면 작은 것으로 .5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코헨의 효과 크기에 미루어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에 대한 남녀 학생 간 차이의 효과가 작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적 자아구성에서는 다소 큰 차이의 효과가 존재한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에는 상당한 효과크기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에서는 남녀 학생 간 차이의 효과가 작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다소 큰 차이의 효과가 존재한다. 반면,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와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에는 상당한 효과크기가 있으며, 특히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에서 가장 큰 효과 크기가 발견되었다.

잠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p < .05$).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p < .001$).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와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한편,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성향이 높으며 긍정형이든 과시형이든지 간에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성의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성은 과시형 자기제시를 하는 남성에 대해 유능하다고 지각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변인인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여학생 N=159, 남학생 N=136)

	1	2	3	4	5	6	7	8
긍정형남자호감도		.533**	.416**	.397**	.708**	.328**	.321**	.253**
과시형남자호감도	.473**		.345**	.599**	.383**	.734**	.293**	.313**
긍정형여자호감도	.132	.192*		.163	.432**	.115	.448**	.011
과시형여자호감도	.176	.676**	.413**		.266*	.455**	.227**	.725**
긍정형남자유능감	.659**	.426**	.259**	.178		.334**	.398**	.220**
과시형남자유능감	.557**	.784**	.049	.425**	.492**		.128	.397**
긍정형여자유능감	.105	.262*	.554**	.490**	.459**	.254**		.108
과시형여자유능감	.296*	.527**	.254**	.901**	.191	.523**	.455**	

주: 대각선 왼쪽 아래쪽은 남학생 대상 상관 값, 오른쪽 위는 여학생 대상 상관 값임

* $p < .05$ ** $p < .01$

갓페리(Godfrey et al., 1986)는 유능감을 얻는 것은 호감도를 얻는 것과는 별개라고 했는데, ‘유능감’과 ‘호감도’ 이 두 가지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의 두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기 증진의 역설(self-promoter's paradox)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주장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때보다 자신감이 없다고 평가 받으며, 따라서 ‘유능감’ 과 ‘호감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강조할 때, 그것이 호전적이며 자만심이 강한 것으로 보여, 호의적이지 못한 인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Godfrey et al., 198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정황에서는 ‘호감도’와 ‘유능감’이 반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수의 경우, 학생들은 능력 있는 교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다른 정황에서 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은주,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들이 느끼는 긍정형 남자에 대한 유능감-호감도, 과시형 남자 유능감-호감도, 긍정형 여자 유능감- 호감도, 과시형 여자 유능감-호감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자들이 느끼는 긍정형 남자 유능감-호감도, 과시형 남자 유능감 호감도, 긍정형 여자 유능감 호감도, 과시형 여자 유능감-호감도에서도 지각된 유능감과 호감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 제시에 대한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도 반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남녀 집단에서의 가설 모형 적합도 비교

남녀 학생 집단에서 측정모형의 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수가 11개로 너무 많아 종속변인을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으로 나누어 두 개의 모형을 만들어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호감도 모형: $\chi^2=503.86$, 자유도=350, TLI=.936, RMSEA=.039, 지

<표 6> 모형의 남녀 학생 집단별 모수 추정치(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기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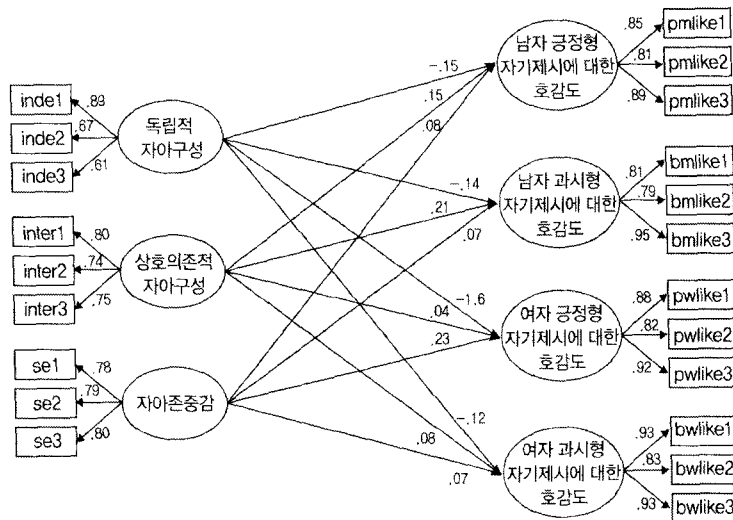
모수	남자	여자
독립적 자아구성 → 긍정형 남자에 대한 호감도	-.203(-.167)	-.022(-.015)
독립적 자아구성 → 과시형 남자에 대한 호감도	-.204(-.164)	-.046(-.030)
독립적 자아구성 → 긍정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	-.202*(-.206)	-.003(-.002)
독립적 자아구성 → 과시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	-.228(-.152)	-.012(-.008)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긍정형 남자에 대한 호감도	.088(.061)	.676**(.330)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과시형 남자에 대한 호감도	.159(.109)	.716**(.322)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긍정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	-.068(-.059)	.374(.216)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과시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	-.131(-.074)	.688**(.301)
자이존중감 → 긍정형 남자에 대한 호감도	.130(.073)	.032(.020)
자이존중감 → 과시형 남자에 대한 호감도	-.058(-.032)	.164(.093)
자이존중감 → 긍정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	.391**(.274)	.196(.144)
자이존중감 → 과시형 여자에 대한 호감도	.162(.074)	.056(.031)
독립적 자아구성 → 긍정형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486***(-.355)	-.222(-.147)
독립적 자아구성 → 과시형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114(-.111)	.082(.068)
독립적 자아구성 → 긍정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246*(-.204)	-.191(-.159)
독립적 자아구성 → 과시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160(-.123)	.011(.009)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긍정형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005(.003)	.764***(.359)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과시형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276*(.233)	.633***(.375)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긍정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022(.016)	.072(.042)
상호의존적 자아구성 → 과시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169(.111)	.585***(.316)
자이존중감 → 긍정형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197(.101)	.030(.018)
자이존중감 → 과시형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157(-.108)	-.125(-.094)
자이존중감 → 긍정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215(.124)	.180(.136)
자이존중감 → 과시형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243(.131)	-.440**(-.302)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고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p<.05, **p<.01, ***p<.001

각된 유능감 모형: $\chi^2=517.21$, 자유도=350, TLI=.944, RMSEA=.040). 이 모형의 남녀 각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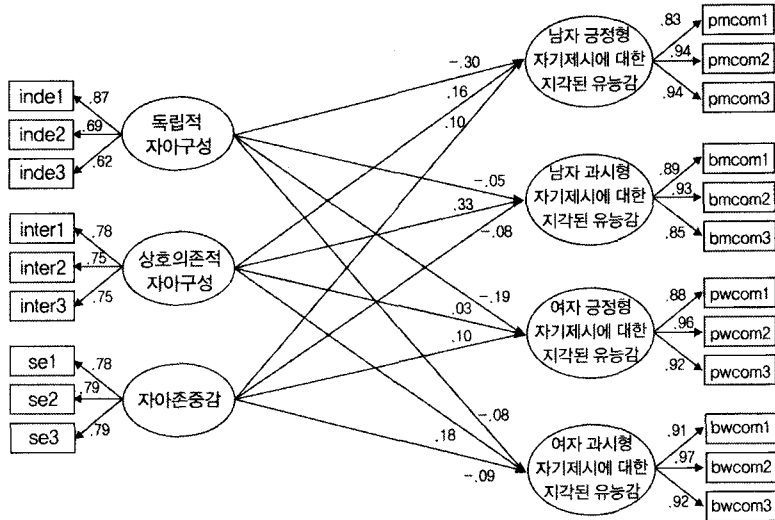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델의 적합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호감도 모형: $\Delta\chi^2(12, N=296)=13.98, p<.001, \Delta TLI=.001, \Delta RMSEA=-.001$, 지각된 유능감 모형: $\Delta\chi^2(12, N=296)=23.11, p<.001, \Delta TLI=-.001, \Delta RMSEA=-.002$). 이는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이 남녀 학생 두 집단에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은 <그림 2>과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호감도)



*모든 경로와 요인 적재치에 남녀 두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임. 나타낸 수치는 남학생 집단에서의 표준화된 계수임. $\chi^2 = 517.84$, 자유도=362, TLI=.937, CFI=.951, RMSEA =.038

<그림 3>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지각된 유능감)



모든 경로와 요인 적재치에 남녀 두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임. 나타낸 수치는 남학생 집단에서의 표준화된 계수임. $\chi^2=540.324$, 자유도=362, TLI=.943, CFI=.955, RMSEA=.041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자아구성의 차이가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제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자아존중감이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제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독립적 자아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자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상호의존적인 자아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자 긍정형 자기제시와 남자 과시형 자기제시, 여자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해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남자 집단에서 이것이 높을수록 여자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유능감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독립적 자아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자 긍정형 자기제시와 여자 긍정형 자기제시에 대해 지각된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자 집단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자아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자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여자 집단에서는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자 긍정형, 남자 과시형, 여자 과시형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여학생 집단에서 그것이 높을수록 여자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아구성이 독립적인 사람들은 웹사이트 주인의 자기제시 유형에 따라 호감도에 있어서 그 평가를 달리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상호의존적인 여성들은 모든 자기제시에 대해 호감도에 있어 대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성들은 긍정적으로 자기를 제시하는 여성에 대해 높은 호감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능감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남자일수록 남자는 여자든 상대가 긍정적으로 자기제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는 점과 상호의존적인 여성은 모든 유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여성 모두 상호의존적인 사람일수록 과시형 남자에 대해 지각된 유능감이 높다는 것은 재미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성이 과시형 자기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유능감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도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주인에 대한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의 잠재 평균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는 잠재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을 참조 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헨의 효과 크기를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에서는 남녀 학생 간 차이의 효과 크기가 매우 작았다. 또한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작지만 차이의 효과 크기가 존재했다. 반면, 긍정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와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에는 상당한 크기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한 호감도에서 가장 큰 효과 크기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서 긍정형 자기 제시는 과시형 자기 제시보다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라는 첫 번째 연구 가설은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녀 모두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동성의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시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는 긍정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보다 유능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라는 가설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의 자기제시에 대해 보다 유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여성의 경우 과시형 자기제시를 한 남자에 대해 유능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형 자기제시와 과시형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와 지각된 유능감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는 성별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가 있다는 길버트와 호렌스타인의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느끼는 남성의 자기제시에 대한 호감도와 유능감이 동성에 대한 호감도와 유능감보다 높았으며, 동성의 과시형에 대한 호감도가 특히 낮았다. 이것으로 보아 성별에 대한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며, 동성보다는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며 과시형 자기제시의 이성에게는 비교적 관대함을 알 수 있다. 길버트와 호렌스타인의 연구에서 긍정적 남자를 가장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에 대비해, 본 연구에서는 긍정형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으나, 나중에 언급되듯이 이는 호감도가 외모적인 변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밀러(Miller et al., 1992)의 연구를 보면, 남자의 경우 잘난 척에 최상급을 많이 사용하며 남자의 잘난 척이 더욱 극단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최상급을 많이 사용하며 극단적으로 보이도록 비슷하게 조작하였으므로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립적 자아 구성의 사람들은 웹사이트에서 긍정형 자기 제시를 보인 사람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를 한 사람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과 상호의존적 자아 구성의 사람들은 과시형 자기 제시를 보인 웹사이트보다 긍정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자아 구성과 지각된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가설도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서 성별 차이가 뚜렷했으며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 보다 과시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과시형 자기 제시 웹사이트보다 긍정형 자기 제시의 웹사이트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일 것이라는 등의 가설들도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일관된 경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남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형 자기제시를 하는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과시형 자기제시를 하는 동성에 대해 낮은 지각된 유능감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분변인에 대한 남녀 집단 간 분석에서는, 자아구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남녀 간 잠재평균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아구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잠재 평균의 차이에서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을 뺀 독립적 자아구성과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상의 자아 존중감의 경우 실제의 자아와 다르게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영(Young, 1998)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상에서의 자기 제시뿐만 아니라 상대를 평가하는 데에도 이상적인 자신으로써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를 평가할 때도 사려 깊고 남을 신경 쓰는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상호의존적 자아구성이 잠재평균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얻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주인의 외모(appearance)가 통제되지 않으면 남녀가 흔해져 피험자들이 자기 제시 유형의 영향이 아닌 외모의 영향을 받아 호감도, 지각된 유능감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모를 가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피험자들에게 어떤 웹사이트의 주인이 가장 호감이 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했을 때, 웹사이트 주인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간다는 내용이 있어서 외모에 대한 통제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김경호 (2003). 자아존중감, 체면민감성과 자기제시전략간의 관계. 중앙대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수현 (2006). 가상 공간의 시각 이미지와 자아 정체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싸이월드에서의 사진 활용 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영상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은주 (2005). 자아 구성과 내, 외재 동기 유형이 교수자의 자기 제시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교육 심리 연구』, 19권 4호
- 오원웅 (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에 관한 연구 - 20대 싸이월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 대학원 석사논문.
- 이석재 (1996). 자기 제시 책략 척도의 타당도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10권 1호, 115~135.
- 조희진 (2006).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패턴과 인간 관계에 관한 연구. 싸이월

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창호 (1993). 체면과 자아 존중감, 통제 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한규석 (2002). 『사회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세희·황매향·이은설 (2005). 청소년의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 심리 연구』, 19권 4호, 1159~1177.

- Baumeister, R. F. (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91(1), 3~26.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Dominick, J. R. (1999). Who Do You Think You Are?: Personal Home Pages and Self-Presentation on the World Wide Web.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 646~658.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 _____. (1970). *Strategic Interaction*.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81). "Replies and Response" In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im, J. S., Kim, M. S., Kam, K. Y. & Shin, H. C. (2003). Influence of Self-Construals on the Perception of Different Self-Presentation Styles in Korea. *Asi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89~101.
- Kim, M. S., Kim, I., Kim, J., Kim, R. & Kam, K. (2004). To Brag or Not to Brag?: Cultural Relativity of the Perceptions of Self-Presentation. Paper Presented at 2004 ICA, New Orlean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 Component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4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L. C., Cooke, L. L., Tsang, J. & Morgan, F (1992). Should I brag?: Nature and Impact of Positive and Boastful Disclosure for Women and Me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8, 364~39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terey, CA: Brooks/Cole.
- Schutz, A. (1998).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Good and Bad Deeds: Defensive and Favorable Self-Description Moderated by Trait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4), 466~475.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54~389.
- Smith, M. J. (1998). Emerging Strategies of Identity: The Rhetorical Construction of Self in Personal Web Sites. Ph.D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 Trammell, K. D. & Keshelashvili, A. (2005). Examining the New Influencers: a Self-Presentation Study of a-list Blog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2005, 82(4), 968~982.

(최초 투고 2006.9.1, 최종 원고 제출 2006.10.25)

The Effects of Self-construals, Self-esteem, and Gender on the Evaluation of Personal Web Sites' Self-presentation Styles

Yun-Mi Lee, Hye-Young Yang, and Mi-Na Lee

Graduate Students

Joo-Han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how visitors of personal web sites evaluate self presentation styles. We hypothesized that visitors' gender, self construals, and self esteem would influence the evaluation (likeability and perceived competence) of the self presentation styles (bragging or positive presentation). The hypothesized models were tes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constructs were also examined through latent mea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females tended to have higher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 than males. And the male and the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likeability toward the self presentations of the other gender. Regarding perceived competence, women and men perceived the other gender more competent, and especially, women perceived men's bragging presentation more competent. Self construals and self esteem, howeve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s, which were in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with off line self presentation styles. One of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visitors' gender, among other thing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perceiving and evaluating others' self presentation through personal web sites.

Key words: personal web sites, self presentation styles, self construals, self este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Latent Mean Analysis (LMA)